

## 충주 국민체육센터 현상설계를 마치고

### Completing the Competition Entry Project for Civil Sports Center of Choongju

최재인 / (주)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
by Choi Jae-In

#### 계획 고민하기

- 이곳이 바로 그곳이기에

어릴적 친구들과 맥감고, 칩뿌리를 캐어먹던 곳이 바로 이 현상설계 SITE 이기에 꼭 설계에 당선되었으면 했고, 30년이 지난 지금 이 현상설계와 인연이 될려고 그랬는지 나는 30여년전에 이미 SITE 지질조사까지 했기에 꼭 당선되고 싶었다.

- 어쩔 수 없는 현상설계이기에

현장설명때 30여업체나 참여해 질의도 많았지만, 막상 작품제출한 업체는 5개업체 뿐이었고, 결국 당선은 한업체 만 되니 나머지 참여업체의 그동안 고생한 품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?

- 국민체육센터라고 하기에

25m 8레인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, 문화교실 모두 합쳐서 1,300평 규모의 2층건물로 계획하라고 했는데, 왜 이런 유형의 건축물들을 "센터" 라고 하는지 설계자인 우리도 잘 모르겠다.

- 주변건물과 어울려야 하기에

바로 인접대지 옆 팔작기와 지붕의 우륵당과 조화될 수 있게 수영장을 설계해야 하는데, 과연 기와집과 조화가 되는 디자인은 어떤것인가? 수영장과 기와집은 태생이 서로 틀린데 "전통"이라는 풀지못한 "화두"가 이 현상설계 내 내 머리속을 어지럽게 하고, 실력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했다.

#### 현상 설계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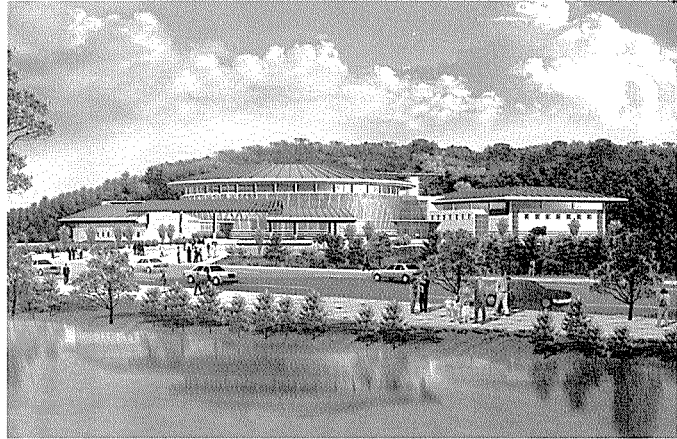
- 최선의 배치안이어야 하기에

어떻게든 산림훼손 덜하고, 자연지형을 이용해 환경에 순응하는 배치가 되어야 한다가에 언덕은 남기고, 낮은쪽에는 광장을 만들었는데, 전면에 있는 숲은 도시계획에 의해 광장이 된다니 그것은 자연 훼손이 아닌지?

- 수영장이 2층에 있는 평면이기에

사워하고 계단을 올라가 수영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지만, 그렇게 해야 그래도 커튼월 넘어 호수의 전경을 가슴에 가득 안고서 수영할 수 있고, 도로에서 노출되는 비키니 수영복 아가씨의 프라이버시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.

- 호수의 전경이 외벽면에 반사되게 하고 싶기에



충주 국민체육센터 당선안

건물이 자연을 품에 안을 수 있다면 비록 반사유리에 비친 모습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기에 전면에는 벽면을 경사지게 하여 평화스런 호수를 담아보려고 했다.

-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면  
자연채광보다 좋은 것은 없다. 그래서 천창을 만들고 고층창도 만들어 밝고 쾌적하게 하면서 에너지도 절약된다면 그것이 친환경 아닐까? 그렇지만 자연채광이 많으면서도 수영장 POOL에 이끼가 끼지않는 정도가 얼마큼인지 더 공부 해야겠다.

### 당선 기분내기

- 예산에 맞는 설계를 해야 하기에  
45억원 이란 공사비가 내돈은 아니지만 설계자는 갑자기 부자가 된것 같고, 자재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특권도 있다. 설계를 잘해서 모든 기능적인 문제가 잘 처리되고 외관도 우수하며 공사비를 절약한다면 그 절감한 금액의 5%라도 설계자에게 주는 제도가 훨씬 설계를 잘하게 할텐데....
- 설계비는 주는대로 받아야 한다면  
현상설계가 끝났어도 설계비가 얼마인 줄 모른다.  
발주처가 아직 안알려 줬으니 그럴 수밖에 없고, 그냥 많이 준다면 좋겠는데, 예산기준에서 깎이나 말았으면 좋겠다. 이것이 어디 현상설계 뿐인가. 도대체 우리나라 건축 설계비의 적절한 기준은 무엇인가? 이것이 과연 OECD 선진국인가?
- 현상당선은 한턱내야 한다면  
당선되어서 싫은 사람 있을까? 그렇지만 우리의 웃음뒤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을까? 내심 걱정된다. 우리도 그런적이 많았기에..... 밤샘 직원들 및 또 그 가족들이 없으면 도대체 건축이 되는건지? 한턱 내는 것은 문제없지만 그냥 웃고 즐겁지만은 않다.
- 기분은 순간, 고통은 계속된다기에  
각종 영향평가, 심의, 자문, 협의 등에 시달려 본 사람은 관공서 설계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을 터이지만, 그래도 설계는 공사하는 것보다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편하다고 스스로 위안도 해본다. ㄷ